

- 고소인 : 김여진
- 피고소인 : 이종석
- 고소취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 피고소인과의 관계 : 대학 후배로 2017년경 지인 소개(삼육대학 청년 단체 SAY 리더). 일시적으로 관계가 중단된 적 있으나 2021년 봄경 피고소인이 다시 연락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멘토 역할 해옴. 피고소인의 요청으로 2022년 11월부터 천성교회(경기도 구리시 금강로 2-1) 청년반 출석 도움.

#### [사건 시계열 정리]

- 2025. 6. 28. 목격자 권태하(고소인의 형부, 동 교회 출석)가 천성교회 2층 청년반 방에서 피고소인이 싱크대 쪽에 서 있던 고소인의 뒤에 쭈그려 앉아 치마 속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하도록 잡은 모습을 보고 피고소인을 따로 불러내어 면담.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고 쭈는 행동을 하는 강박 증상이 최근에 생겼고, 그때도 강박 증상이 도져서 바닥을 쭈는데 손에 폰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함. 폰 갤러리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과호흡 증상 호소하여 대화 중단. 고소인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리고 해명하라는 요구에 7. 1. 고소인에게 연락.
- 2025. 7. 1. 고소인 도촬 의혹 처음으로 인지. 1일 밤과 2일로 넘어가는 밤에 두 차례 통화. 도촬 건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의 강박 증상 호소와 물적 증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넘어감. 원래 피고소인의 불안 및 강박에 대한 정신병력 알고 있었음. 권태하에게 갤러리를 보여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궁하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에 게시된 인플루언서, 제3자, 주변 지인들의 모든 게시물과 야한 사진 등을 캡처하여 소지하고 있어 부끄러워서 보여주지 못했다고 해명. 해당 사실에 대해 도덕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진 삭제 요청했으나 저장 강박이 있어 지우지 못하겠다고 하며 시간을 달라고 함.
- 2025. 7. 6. 카카오톡, 7일과 11일 피고소인과의 통화에서 피고소인이 SNS에 게시된 인플루언서, 제3자, 주변 지인들과 천성교회 여청년들의 게시물을 캡처하여 자위에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인은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캡처한 사진들을 삭제하도록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저장 강박 증상 때문에 지우지 못한다는 변명을 하며 받아들이지 않음. 오히려 자신을 성적 목적으로 SNS

게시글을 캡처한 사람으로 본다면 화를 내며 고소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사진을 지우기 위해서는 본인의 강박 증상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논점을 흐리고, 본인의 강박 증상 해소를 위해 자신과 더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주기를 요구하여 거절함. 고소인이 사회적, 도덕적, 법적,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해당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사진을 지우지 않았고 오히려 사진을 지운다고 해도 본인이 기억을 잘 하는 편이라 자위하는데 사진이 꼭 필요치 않다는 말까지 함. 피고소인 설득이 안 되고 사진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진을 지우지 않으면 손절할 거냐며 고소인에게 되묻길래 해당 행위가 선을 상당히 넘었고 더는 용납할 수 없음을 고지. 이후 더 이상의 연락과 대화는 중단하고 방법 강구. 피고소인이 SNS 게시글과 주변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죽고 싶다”고 하는 등 감정적으로 호소함. 이후 다시 교회에 출석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공통 지인 채예진(함께 멘토 역할 해옴)으로부터 전해 들음.

- 2025. 7. 27. 고소인은 카톡으로 피고소인에게 교회에 다시 출석할 거면 SNS를 무단으로 캡처하고 자위할 때 사용한 것에 대해 천성교회 여청년들에게 직접 알리고 사과하고 해당 사진들을 삭제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확인 후 무응답.
- 2025. 7. 28. 대답을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전화로 본인은 그게 왜 잘못인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며 시간을 달라는 말을 못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고소인이 자기를 압박하고 협박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탓함.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여청년들에게 사과할 거면 자리 마련해 줄 테니 생각해 보고 알려달라고 함. 피고소인 카톡으로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함. 그러나 7. 31. 카톡으로 10월 둘째 주까지 가서 사과하겠다는 등 시일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사진에 대해서는 다음날까지 다 지우겠다고 함.
- 2025. 7. 말경 고소인의 남자친구의 지인 박지건을 통해 피고소인이 2025. 4. 19에도 고소인의 차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목격한 사실을 전해 들음(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퇴계원볼링센터’). 박지건은 당시에 몰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스마트폰 화면이 까만 상태여서 굳이 말하지 않았으나 이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해당 건과 관련이 있는가 싶어 고소인에게 알림. 피고소인의 도촬 의혹에 대한 의심이 가중되자 경찰에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물적 증거가 없어 무고죄로 역고소당하거나 만에 하나 오해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바로 신고하지 못함.

- 2025. 7. 29. 고소인은 해당 사실을 청년반 담당 목사 표한결에게 알리고 상담. 8. 2. 표한결 목사와 피고소인의 개인 면담을 통해 피고소인은 교회 여청년들의 SNS 무단 캡처 및 소지하고 자위한 것에 대해 여청년들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이때의 면담에서 신체 노출이 있는 야한 사진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진이나 게시글, 댓글을 보고 상대방과의 연결성을 느끼며 자위한 것이라는 내용 알게 됨. 즉, 피고소인은 신체 노출이 없어도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SNS 게시글을 캡처하여 소지해 옴. 같은 날 고소인에게도 카톡으로 사과하겠다고 하며 모든 사진과 영상들을 삭제했다고 말함.
- 2025. 8. 3. 21:30분경 여청년들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전에 표한결 목사와 청년반 임원(문준영, 최우태, 김시은)의 입회하에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한 차례 더 도촬 의혹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진행. 이때의 대화를 통해 피고소인이 2024. 5월경부터 약 1년 2개월간 고소인을 포함한 천성교회 청년반 여청년들을 대상으로 몰카앱을 사용하여 매주 토요일 청년반 활동 때마다 전신을 비롯한 특정 신체 부위(치마 속,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 등)를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캡처, 이를 개인 노트북에 백업하는 등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본인이 자위할 때 사용해 왔음을 자백.
- 이때, 피고소인은 해당 불법 촬영물들을 본인의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 기종을 사용하여 촬영했고, 용량 문제로 본가에 있는 자신의 노트북에 백업, 삭제와 복구를 반복하였음을 털어놓았고, 자신의 도촬 행위가 충동 때문이었다고 주장. 또한, 2025. 7월경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SNS를 무단 캡처한 건으로 고소인과 다툼 이후 화가 나서 삭제했던 고소인을 도촬한 영상을 복구하여 다시 한번 자위에 사용했고, 목격자 권태하와 고소인과의 대화에서 바닥에서 핸드폰을 줍는 강박이 있다고 한 것이 정신병적 증상이 아닌 핑계였음을 시인함.
-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피고소인이 먼저 털어놓을 것이 더 있다며 본인이 생리에 대한 페티시가 있어 2024. 8. 말경 교회 청년반에서 여름 캠프를 갔을 때 숙소 화장실에서 여청년의 생리대를 취득하였고, 천성교회 여자 화장실에도 두 차례 침입하여 생리대를 취득했고, 이를 위해 2024. 11월경부터 여청년들의 가방을 뒤져 생리대 소지 유무를 확인했음을 추가적으로 자백함.(이러한 자백 행위는 법적 절차를 막기 위해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 피고소인, 표한결 목사에게 카톡으로 자신이 정식 압수수색을 받지 않게 해준다면 본인이 저장했던 USB(스티커로 라벨링)까지 다 넘기고 컴퓨터, 파일, 노트북을 교회로

가져와 지우는 걸 확인 시켜드리겠다고 함. 이후 표한결 목사가 피고소인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응답.

[확인할 점]

- ▷ 본 사건에 대한 예측 및 전략.
- ▷ 법적, 잠재적 리스크.
- ▷ 가해자가 증거 인멸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될지. (피고소인이 이미 폰 영상은 삭제했다고 말함. 포렌식 해도 일상적인 영상만 나오고 수치심 느낄만한 부위가 찍힌 게 복구되지 않을 경우, 혹은 기기를 없앴을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고소인 측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 ▷ 변호인 조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 무엇이 있고 어디까지인지. 수임료는 얼마인지. (추후 피해보상 청구나, 피고소인이 항소할 경우 2심, 최종심까지도 맡아주시는지. 이 경우 비용이 추가되는지)
- ▷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사&재판 과정 추적, 피고소인 측 자료 열람등사 신청 등 업무 대리도 가능한 건지.
- ▷ 변호사 선임할 경우 실제로 어느 분이 사건을 맡으시고, 본인과 다이렉트로 소통이 가능한지.
- ▷ 본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 어떻게 처리하셨고 이 사건을 맡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지.
- ▷ 2024년 6월 24일 시점까지 이민서 법적 미성년자였음. 작년부터 중고등부 학생반과 연합 활동 자주 했는데 학생들 영상이나 사진도 찍혔을 경우 아청법 추가 고소 가능한지. 혹은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 ▷ 2025. 8. 6. 서초경찰서 여청과 상담 후 민원실 통해 고소장 정식 접수. 8. 18.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이송. 개인으로 고소했지만 추후 추가 피해자 확인되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 합류 가능한지.
- ▷ 포렌식 과정에서 도촬 당한 피해자들 신원확인을 고소인이 조력하는 것이 가능한지.